

영원한 축복을 미리 본 전도자 다니엘

-복음으로 여는 다니엘서-

다니엘 12:1-3, 마태복음 24:14-16

정윤돈 목사님

* 단12:1-3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마24:14-1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실 별이 영원토록 빛나지는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다. 이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들이 작게 보이지만 사실 보이는 별들이 다 태양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더 크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그렇다. 하늘에서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 이것이 전도자들이 받을 영원한 응답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대단한 총리가 되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내지 않고 살면 모든 게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결론내면 모든 게 축복이 되고 깨달음의 발판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다니엘을 정식으로 선지자로 인정할 적이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던 중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을 직접 선지자로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즉,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믿는 사람은 영생활 것이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헌금과 발걸음과 중심

과 정성, 헌신, 찬양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 될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다. 이 비밀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다니엘 선지자는 백 년, 천 년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은 시대의 파수꾼이며 모델적인 전도자였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생활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위대한 전도자였다. 다니엘은 포로로 남는 자로 끌려갔는데, 그 현장에서 전문인이 되고, 중직자, 선지자, 예언자, 전도자, 선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니엘은 BC.530년까지 약 90세를 살면서 남유다, 바벨론, 페르시아시대를 살았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스(페르시아), 고레스 등 네 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당시의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정적들이 많았지만 다니엘은 국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였다. 성경에는 네 명의 왕을 섬겼던 걸로 나오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왕들을 섬겼다. 그러면서도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 바다에 큰 배를 띄우면 큰 배가 되고 작은 배를 띄우면 작은 배가 된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는 응답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다니엘의 영향과 준비로 세월이 지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정리되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관료로 있으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시기도와 신앙과 율법을 지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르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핑계 대는 건 율법주의다. 그건 하나님이 더 악하게 보신다. 다니엘의 삶과 활동은 포로기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살았다. 고레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고레스 왕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부터 다니엘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포로시기에 많은 성경이 정립되었다. 거기서 디아스포라, 회당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당으로 신앙적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벨론 포로시대부터다. 이런 배경을 다니엘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구약성경을 정립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에스라와 같은 후대 인물들이 구약성경을 정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배경과 토대를 제공하였다.

1.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남왕국 유다백성이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북왕국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포로, 노예, 속국의 삶을 살 수 있다.

(1)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을 재단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같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야 한다. 꼭 말씀과 반대로 해서 저주를 다 받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큰 실수를 할 뻔 했는데 말씀으로 미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강단에서 응답받는 사람이다. 가볍게 그냥 강단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복음을 알아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율법은 너무 쉽지만 복음화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 어렵다. 내가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진 건 어렵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지 않으면 계속 사탄에게 속는다. 그러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을 마귀자녀같이 산다. 내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족하지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니다. 응답을 주시면 현당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한다. 타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보여준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도 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게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와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긴 세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혹시 고침을 받아 바뀔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축복받도록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응답을 받기 어렵다. 지금은 나라와 전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뜻을 정할 때부터 달라진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뜻을 정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뜻을 정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나쁜 것은 안 알려줘도 다 잘 하지만 선하고 좋은 일은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2) 두 번째로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악한 백성을 착취하는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다. 이사가서 1장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행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성화와 제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사가서 1장 17절에는 선행을 배우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죄문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활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제가 복지판을 해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복지사가 되더라. 직장도 교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교회와 목사님께 순종하면 직장에서도 그 순종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길 것이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해라.

(3)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C.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다. 남유다의 경우 애굽의 속국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번이나 침공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 번 때리고 결국 포로, 속국 되는 것이다. 중독자들은 모든 걸 빼앗기고 다 망해야 결국 손을 든다. 그제서야 겸손해진다. 여러분은 겸손하지도 않고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진짜 고통이 뭔지도 모른다. 다 망하고 깨닫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찢어 쪼갬다. 말씀으로 치유받는다.

2. 다니엘서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찾아보겠다.

(1)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은 것은 복음적인 자세였다. 복음으로 결론 난 자세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 성공, 직장, 자리, 지위를 따져서 복음, 전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이익과 성공보다는 복음과 예배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았다.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끌고 다녀야 한다. 저는 군대에서 동기를 다 술, 담배 끊게 만들었다. 세상을 이끌어가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한다.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걸 고백하는 게 더 은혜된다.

(2)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온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돌 하나가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온 세상을 채우는 큰 산이 되는 장

면이 묘사되어 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며 신상의 각 부분이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예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잡은 다니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3)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 즉 서밋타임의 중요성을 알았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의 묵상시간을 가졌다. 꼭 시간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단 1분과 10초라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튼튼히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뭐가 문제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아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오직 복음으로 반석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려야 한다.

(4) 네 번째로,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로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인자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인자’라 부르며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5) 또한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칠십 이레의 예언이 등장한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칠십 이레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미래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올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을 예시한 것이다.

(6) 이 모든 예언을 계시받은 다니엘은 결국 전도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다니엘서를 마치고 있다.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성공자가 아닌 전도자로 남을 것을 권하고 자랑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영광과 축복을 천국에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만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선지자 다니엘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백 년, 천 년뿐 아니라 영원히 응답을 받을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과 도전할 언약의 미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